

국어의 주관화 과정과 문법화의 범위에 대하여

조미희*

|| 차례 ||

- I. 서론
- II. 주관화 과정의 세부 구분
- III. 주관화와 문법화
- IV. 결론

【 】

언어의 체계적인 변화 경향을 설명하기 위한 문법화 이론의 여러 개념 중 주관화 과정은 의미 변화의 경향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도입된 이래 의미 변화의 방향과 이를 동기화하는 인지적 기제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본고는 지금까지 세 가지 경향성으로 기술되어 왔던 주관화 이론을 다섯 단계로 세분하며, 이를 위해 영역내 변화와 영역간 변화의 구분을 도입한다. 그리고 문법화 이론의 보완을 위하여, 주관화 이론이 문법화 이론과 가지는 관계를 다시 고찰한다. ‘주관화’와, 그 영향으로 일어나는 체계적 언어 변화인 ‘화용화’는, ‘문법형태화’라는 좁은 의미로 사용되는 ‘문법화’ 이론에 체계적인 반례를 제공한다. 본고는 기존의 문법화 이론이 정립한 질 결합의 연속변이가 가진 방향성을 한국어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 이 사례가 산발적인 예외가 아니라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라는 형태로 체계적으로 발생하는 예외라는 점을 들어 문법화 이론의 수정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주관화 과정에 의해 동기화된 언어 변화, 특히 담화 장면에서의 화용화는 좁은 의미의 문법화 이론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일정한 경향성을 가진다. 주관화와 화용화가 던지는 문제 제기를 통해 문법화 이론을 점검함으로써 문법화의 외연을 확장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 주관화, 화용화, 문법화, 영역(도메인),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

* 연세대학교 박사과정

I. 서론

언어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문법화론의 개념들 중, 의미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고안된 주관화(Subjectivization) 과정이 있다(Traugott 1982). 기존의 많은 문법화 연구는 어휘범주가 기능범주로 변화하는 과정에 주목하고, 음운 축소나 융합, 의존범주로의 변화 등 형태적인 측면에 관심을 가졌다. 어휘요소가 문법요소로 변화한다는 범주 변화에 주목하는 연구 경향이 의미 변화로 관심을 넓혀 가며 ‘주관화’ 이론이 등장한다. 문법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미 변화는 어휘적 의미가 소실되고 점차 추상화되는 과정으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주관화 이론의 등장으로 의미의 변화 양상과 성격, 이를 동기화하는 인지적 기제를 더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게 된 것이다. “주관화”라는 용어는 문법화에서 나타나는 의미·화용적 변화의 경향성이 ‘심리적인 것’, 즉 ‘더 주관적인 것’으로 변한다는 공통점을 포착하기 위한 용어이다. 주관화는 크게 세 가지 경향성으로 요약되는데, Traugott & König(1991)에서 정리한 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1) ㄱ. 의미 화용적 경향 I: 외적인, 기술된 상황에 기초한 의미로부터 내적인, 평가/인식/인지에 기초한 의미로 변화한다.
 - ㄴ. 의미 화용적 경향 II: 외적 또는 내적인, 기술된 상황에 기초한 의미로부터 텍스트에 기초한 의미로 변화한다.
 - ㄷ. 의미 화용적 경향 III: 상황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인 신념/태도의 의미가 점점 더 강한 주관적인 신념/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변화한다.

(번역은 이성하(1998: 153)을 따름. 강조는 필자의 것.)¹⁾

1) 이 내용은 다음과 같이 기술되기도 한다.

세 가지 경향성이 한 이름으로 묶여 있는 것은 의미가 점점 주관성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변화한다는 공통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때 ‘주관성’은 ①주체(주어 혹은 화자)의 관점(perspective), ②감정(affect), ③명제에 대한 평가(epistemic status) 즉 양태(modality)를 말한다 (Edward Finegan 1995 :1-15).

많은 주관화 연구는 (1)의 세 가지 의미·화용적 경향성으로 의미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본고는 이 세 가지 경향성이 ‘동일 영역(domain) 내에서 일어나는 의미의 변화’와 ‘영역 사이를 이동하는 의미의 변화’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보충적 기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영역(domain)’이란 Sweetser(1990)에서 설정한 사용 영역(Domains of Use)의 개념과 유사하다. Sweetser는 ‘because’와 같은 연결사의 다의성을 설명하기 위해, 의미가 속한 영역을 내용 영역(content domain), 인식 영역(epistemic domain), 화행 영역(speech act domain)으로 구분하였다.²⁾ ‘because’가 내용 영역에서 인과 의미일 때는 실제 세계의 인과로 문장을 해석하게 된다. 인식 영역에서 인과 의미일 때는 화자의 지식에 의해 문장을 해석하게 된다. 화행 영역에서 인과 의미일 때는 ‘because’를 포함한 모문이 안긴 절에 대한 화행을 수행하게 된다.

경향성 I	외적인 기술적 상황	>	내적 (가치판단/지각/인지적) 상황
경향성 II	외적/내적인 상황	>	텍스트적 상황
경향성 III	(텍스트적 상황)	>	화자의 주관적 신념 상황

번역은 이성하(1998:42)을 따름.

- 2) a. John came back because he loved her. (내용 영역)
 - b. John loved her, because he came back. (인식 영역)
 - c. What are you doing tonight, because there’s a good movie on. (화행 영역)
- (Sweetser 1990:77)

Dancygier and Sweetser(2005)에서 추가적으로 논의되었던 상위언어 영역 (metalinguistic domain)은 현재의 논의와 큰 관련이 없으므로 제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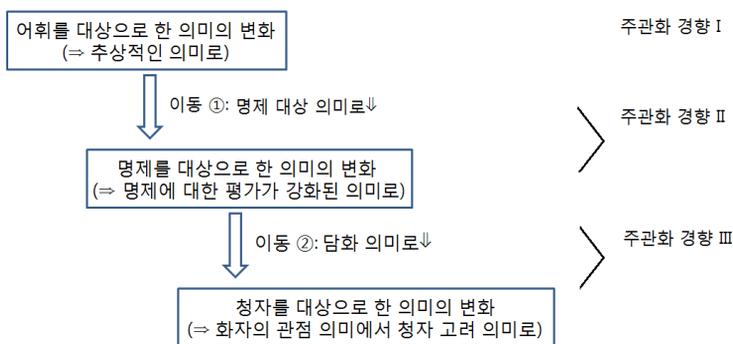
의미를 담지하는 단위에 따라 ‘영역’을 구분할 때, 주관화의 세 가지 경향성은 변화가 발생하는 의미의 영역이 단일한 경우와 이질적인 경우가 섞여서 기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경향성 I의 ‘기술적 상황’이나 ‘가치 판단 상황’은 모두 명제 내부에서 어휘의미를 대상으로 하는 의미인데 반해, 경향성 III의 ‘텍스트적 상황’에서 ‘화자의 주관적 신념 상황’으로의 변화는 통사적인 것에서 화용적인 것으로, 즉 명제를 대상으로 한 의미에서 청자를 대상으로 한 의미로 바뀐다는 점에서 그 성격이 다르다.³⁾

본고는 하나의 영역 내에서 일어나는 의미 변화를 ‘영역내 변화’, 영역을 이동하는 변화를 ‘영역간 변화’로 이분하고자 한다. 이 이분법을 기존의 세 가지 경향성과 교차하여 사용할 경우 변화의 성격이 구체적으로 규정되므로 의미 변화를 설명하기에 용이하며, 특히 한국어의 문법화 과정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자세한 내용은 3장에서 다룬다). 물론 문법화론이 더 자립적인 범주에서 더 의존적인 범주로의 변화를 주된 관심사로 삼는 것도 사실이며, ‘주관화’는 의미 변화에 관한 이론이므로 반드시 언어 단위의 범주적 변화를 수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문법 단위를 형성하는 ‘결과적 의미’에서의 문법화가 아니라, 언어가 일반적으로 변화하는 과정과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리를 살핀다는 ‘과정적 의미’에서의 문법화론을 논의할 때에는 의미 변화에 관한 이론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문법요소라는 확정적인 결과를 내지 않는 경우도 포함하여 보편적인 언어 변화를 설명하기

3) Traugott의 주관화 과정 분류는 Halliday의 체계기능문법(Systemic Functional Grammar)에서 사용하는 메타기능(metafunction) 개념을 이용하고 있다. Halliday의 관념적 메타기능(Ideational metafunction)은 Traugott의 명제적(propositional) 상황, 상호적 메타기능(Interpersonal metafunction)은 텍스트적(textual) 상황, 구성적 메타기능(Textual metafunction)은 표현적(expressive) 상황에 대응된다. 그러나 Halliday는 이들 메타기능을 평행한 것으로 본 반면 Traugott은 순서를 가진 것으로 보았다는 차이가 있다(Heiko Narrog 2012).

위해서는 의미 변화에 주목해야 하기 때문이다.

변화의 방향성을 하나의 축으로 설정하면, 두 개의 축이 교차되는 형태로 주관화의 방향성을 설명할 수 있다. 가로축으로의 변화(\Rightarrow)는 ‘영역내 변화’를, 세로축으로의 변화(\Downarrow)는 ‘영역간 변화’를 나타내도록 설정하면. (그림1)과 같은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1) 주관화의 방향성4)

즉 가로축이 한 영역 내에서 주관성이 강화되는 현상이라면, 세로축은 영역간 이동이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 영역은 순전히 의미론적인 것이지만, 의미의 변화는 통사론적인 변화에 영향을 미치므로 때로는 통사적인 차이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리고 이 변화는, 문법형태화로 정의되곤 하던 기존의 ‘문법화’ 과정과 담화 표지 등 화용적 요소를 결과로 하는 ‘화용화’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4) 기존에 기술된 주관화의 경향성 I은 영역내 변화이며, II, III은 기본적으로 영역간 변화이다. 하지만 한 영역 내에서 주관성이 증가하기만 하는 현상이 있을 경우, II, III에서도 두 종류의 변화를 분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는 이론의 체계적 안정성을 위한 조치이다.

II. 주관화 과정의 세부 구분

여기에서는 앞에서 설정한 경향성 I의 영역내 변화, 경향성 II의 영역내/영역간 변화, 경향성 III의 영역내/영역간 변화가 기존에 다루어진 의미 변화 중 어디에 대응되는지 다룬다.

경향성 I은 영역내 변화만이 존재하며, 기본적으로 어휘의미의 변화에 해당한다. 경향성 I은 구체적인 의미에서 추상적인 의미로 변화하는 은유에 의한 의미 확장으로 다시 기술할 수 있다.

(2) 사람(Person) > 대상(Object) > 공간(Space) > 시간(Time) > 과정(Process) > 질(Quality)

Heine et al(1991:149)

경향성 I은 영역내에 출발점으로 가장 구체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의미를 가진 전단계에서 넘어오는 과정을 설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영역간 변화가 없으며, 영역내 변화만 일어난다. 이 의미 변화는 많은 기본어휘에서 나타난다. (3)은 ‘공간’의 의미로 쓰이는 ‘넋’을, (4)는 ‘시간’의 의미로 변화한 ‘넋’의 예를 보인다(송대헌 2014:48).

(3) ㄱ. 方面은 너기라.(釋譜 19:22)

ㄴ. ㅁ리 윈 녀권 텃고 올흔 녀권 츠더라 (月釋 2:39b)

(4) ㄱ. 동이 틀 넋이면 모두 밭에 나가 일을 한다.(표준국어대사전 1999)

ㄴ. 그는 밤새 말을 달려 날이 썰 넋에 그곳에 도착했다.(표준국어대사전, 1999)

경향성 Ⅱ의 영역간 변화는 어휘 대상 의미에서 명제 대상 의미로 바뀌는 단계이다. 이를테면 [존재]의미를 가진 동사 ‘이시-’는 본래 문장 안에서 서술어로 쓰여 어휘적 의미를 가진다.

(5) 동사로 쓰인 예

- ㄱ. 世尊_스 말 술보리니 千載_스 말 이시나 귀예 듣논가 너기스_스복쇼셔 (월인천강지곡 상:1)
- ㄴ. 이 轉相이 비록 能緣이 이시나 境界微細_스 흘씩 (월인석보 11:79)
- ㄷ. 이 ㄱ티 迷惑의 因이 迷惑을 因_스야 제 이시니 (농업경언해 4:59)

‘이시-’는 다른 용언과 연결어미 ‘-어’로 연결되면, 주어가 선행 용언이 가리키는 동작을 한 채로 [존재]한다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맥락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면 ‘-어 이시-(> -에시- > -어시-)’ 구성은 선행 용언이 가리키는 행동을 전제한 상태에서, 후행하는 서술어나 문장이 가리키는 사태가 발생한다는 의미가 된다.

(6) (-어 이시- >) ‘-어시-’의 예

- ㄱ. 擧_스논 므스매 연저가저실 씨라(몽산범어언해, 2-3)
- ㄴ. 籠竹이 너를 섯거시니(두시언해 초간본 7, 1)

‘-어시-’의 연결어미 활용형은 특히 후행질의 사태가 일어나는 배경의 의미가 되므로, 고빈도 연결어미 ‘-어’의 활용형 ‘-어셔’의 형태는 쉽게 굳어진다. 즉 통합형 연결어미로 발달하게 된다. 이 단계가 되면 (7)과 같이 어원어에 해당하는 ‘이시-’와 어미의 자격으로 연결될 수 있다. 즉 ‘이셔셔’와 같은 예는 ‘-어 이셔’의 축약형이 완전히 문법화되었다는 증거가 된다.

(7) ‘-어서’의 예

- ㄱ. 깃갯 나모 미퉁 이셔셔 (번역노결대, 27)
- ㄴ. 흥나히 짐 보느니 이셔셔 (번역노결대, 42)

존재동사 ‘이시-’는 문장에서 동사로 어휘적 의미를 담당하고 있다가, 더 큰 구성을 이루어 명제를 연결하는 기능적 의미로 변화한다. 이 구성은 하나의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의 단위로 분리할 수 없게 형태론적 단위를 이루고, 현대국어의 연결어미 ‘-어서’로 발달하게 된다. 의미의 영역간 변화로 인해 언어 단위의 문법적 지위도 변화하게 된 예이다.⁵⁾

영역간 변화 이후에는 다시 경향성 II의 영역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명제 대상 의미가 더욱 주관적인 의미로 변하는 것이다. ‘-어서’는 시간적인 순서를 의미하는 [선후] 의미를 가졌으나, [인과] 의미로 확장된다. 여기에는 화용적 추론, 특히 ‘함축의 관습화(conventionalization of implicature)’가 작용한다.⁶⁾ 선후관계가 표현될 때 일반적으로 먼저 발생한 일이 나중에 발생한 일의 원인이 된다는 화용론적 추론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일시적인 함축을 발생시키는 구성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면 결국 함축의 내용이 굳어져 의미에 편입되는 것이다.

즉 ‘-어서’는 처음에는 선행절의 동사로서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나, 의미가 점차 주관화되면서 앞 뒤 명제의 [계기성]의 의미를 나타내게 되고(경향성 I→II), 다시 [인과]적 의미로 변화하는 연속변이를 보인다(경향성 II). 이러한 변화의 동기에는 인간의 인지적 능력이 관여하며, 의미의 변화는 문법적 지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5) ‘-어서’의 문법화 과정에 대해서는 이기갑(1998), 안주호(2002) 참고.

6) 함축의 관습화 과정에 대해서는 Traugott & König(1991)에서 접속사 since의 의미 변화를 다루면서 설명하였다.

경향성 Ⅲ의 영역간 변화는 명제 대상 의미에서 담화 의미로 바뀌는 단계이다. 그 예로 연결어미가 종결어미로 변화하는 경우가 있다. 화자의 주관적 신념은 양태의 기능범주로 표현되거나 의향법에 나타나곤 한다. 그런데 한국어에서 양태 범주는 선어말어미나 종결어미가 비교적 체계를 이루어 문법범주를 구성하고 있고(박재연 2006), 명령, 요청 등의 의향법은 종결어미를 통해 드러난다. 한국어에 일반적인 기능과 형식의 연결 관계(mapping)를 생각할 때, 의미가 담화적인 것으로 변화함에 따라 이를 표현하는 언어 단위가 종결어미로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의미의 추상화를 거친 모든 단위가 경향성 Ⅱ나 Ⅲ까지 겪는 것은 아니지만, 경향성 Ⅲ을 겪는 언어 단위는 앞 단계도 거치는 경우가 많다. 이를테면 명사 ‘터’는 [장소]를 의미하는 자립명사로, 명제 내에서 어휘적인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던 어휘이다. 이후 [상황, 처지]를 뜻하는 추상적인 의미로 확장되고, 이 의미는 보문을 취하는 구성에서 나타나며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다(경향성 Ⅰ). 추상적 의미의 ‘터’는 보문소로 ‘-르, -느, -던’을 취하였는데, 그중 ‘-르’를 보문소로 취하는 경우 ‘-르’절에 의해 표현되는 비현실(irrealis) 상황에 관한 진술 의미를 가지게 된다. 즉 더 이상 명제 내부에 포함된 의미가 아닌, 절이 표현하는 명제를 기술하게 된다(경향성 Ⅰ→Ⅱ). ‘-르 터이-’ 또는 그 줄어든 꼴인 ‘-르테-’는 선행 명제가 미래에 발생할 것이라는 진술의 의미에서, 더 주관적인 평가 의미로 변화하게 된다. 즉 확실히 발생할 것이라는 판단을 나타내게 되어, ‘-르테-’ 구성은 (8-7)과 같이 명제 내용이 표현하는 미래 상황에 대한 [확실성]의 의미를 가진다(경향성 Ⅱ). 미래에 대한 [확실성]이 화자의 판단으로 굳어지면, 미래 상황에 대한 [다짐] 의미로도 확장된다(경향성 Ⅱ→Ⅲ).

(8) 7. 내년에는 가격이 20% 오를 터이다/오를테다(=오를 것이다)

- ㄴ. 철수가 대학에 들어갈테다/들어갈 터이다(=들어갈 것이다)
 ㄷ. 나는 대학에 들어갈테다/들어갈 터이다(=들어갈 것이다)

(8ㄴ)은 화자가 주어의 미래에 대해 내린 확실성 판단이다. 그런데 (8ㄷ)과 같이 주어와 화자가 동일할 경우 [다짐] 의미로 확장된다. 자기의 미래에 대한 확실성 정도는 자신의 의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맥이 반복적으로 사용됨으로써 ‘-르테-’가 화자의 다짐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안주호 1997). 명제 내용에 대한 평가 의미에서 화자의 주관적 신념을 표현하는 의미로 변화한 것이다. 화자와 주어가 불일치하는 (8ㄴ)은 미래의 [확실성] 의미만 나타낼 수 있지만⁷⁾, (8ㄷ)은 ‘-르테-’의 경우 [확실성]과 [다짐]의 중의성을 가진다. 이러한 의미의 확장은 축소형인 줄어든 꼴인 ‘-르테-’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원형인 ‘-르 터이-’는 [확실성] 의미만을 나타낸다.

형식명사 ‘것’의 조사결합형 ‘-것이’, ‘-것을’이 문법화하여 종결어미 ‘-르게’가 되거나, ‘-르겠’이 되는 현상도 이와 유사한 예이다(안주호 1997). 연결어미가 종결어미가 되는 경우도 다양하다. [도급] 의미에서 [목적] 의미로 변화한 연결어미 ‘-도록’이 다시 [지시]의 종결어미가 되거나(“내일까지 정리하도록”) ⁸⁾ ‘-면서’가 [확인]의 종결어미가 되는 현상도(“너 지난주

7) ‘철수가 대학에 들어갈테다’는 화자의 확신을 나타낼 수는 있지만 철수의 의지는 나타낼 수 없다.

8) 연결어미 ‘-도록’은 [목적] 의미에 의해 결과 함축을 가진다(신연수, 오윤경 2015:271).

ㄱ. 물이 잘 빠지도록 철수가 하수구를 고쳤다.

ㄴ. 배탈이 나지 않도록 날것을 먹지 마라.

이 경우 주절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종속절이 가리키는 사건이 수반된다고 본 것이다(석주연 2006). 주절 서술어가 가리키는 행위, 즉 후행절 서술어가 가리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했던 선행절의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함축은 후행절

에 집에 다녀왔다면서”) 청자를 향해 표현되는 화자의 의향 의미로 주관화가 일어나고 그 결과 종결어미로 문법화 과정을 겪은 것이다. 이들은 명사나 연결어미로서 명제의 일부였다가, 화청자의 대화 상황에서 화자의 의도나 명령 등 화행을 수행하는 의미로 변하고 그 결과 의향범이 표현되는 자리인 종결어미로 변화하였다.

다만 주의할 점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주관화는 순전히 의미의 변화에 관한 이론이므로 반드시 통사적 지위의 변화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예로 보조동사의 의미가 명제 내의 서술어부에서 주어의 관점을 표시하는 의미기능을 수행하다가, 주관화 과정을 통해 명제 내용에 대한 화자의 관점을 나타내는 의미로 변화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조미희 2013)⁹⁾. 유사한 의미를 가진 보조용언 구성 ‘-어 버리-’와 ‘-어 치우-’를 비교

을 생략했을 때도 여전히 추론 가능하다.

- ㄱ. 눈에 띄지 않도록 평범한 색의 옷을 입는 것이 좋겠다.
- ㄴ. 눈에 띄지 않도록 평범한 옷을 입어라.
- ㄷ. 눈에 띄지 않도록!

(ㄱ)은 [목적]의 의미로 쓰이는 ‘-도록’의 예이고, (ㄴ)은 명령형 어미를 사용함으로써 청자에게 목적을 달성하여 결과를 내리는 의미가 강하게 나타난 예이다. 이때 후행절을 삭제한 (ㄷ)은 여전히 청자에게 ‘결과를 달성하도록 하라’는 의미가 추론 가능한 상태이고, 이러한 화용적 의미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면 ‘-도록’이 쓰인 선행절만으로도 청자에게 하는 [지시]의 의미가 된다. 화용론적 함축이 의미의 일부가 됨으로써 ‘-도록’은 종결어미의 지위를 얻기에 이른다.

9) ‘-어 버리-’는 화자의 관점을 나타내는 의미로 주관화가 진행된 반면(경향성 III) 유사한 어원어에서 문법화 과정을 거쳐 형성된 ‘-어 치우-’ 구성은 주어의 관점을 나타내는 데 머물러 있다(경향성 II). 이와 같은 의미 변화는 다음과 같은 통사적 조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1) ㄱ. 고양이가 쥐를 잡아 버렸다.
 ㄴ. → 쥐가 고양이에게 잡혀 버렸다.
- (2) ㄱ. 고양이가 쥐를 먹어 치웠다.
 ㄴ. → *쥐가 고양이에게 먹혀 치웠다.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의 목적어가 되므로, 피동화가 되지 않고 남아 있는 보조용

하면 ‘-어 버리-’의 주관화가 많이 진행되어 화자의 관점을 표시하는 반면 ‘-어 치우-’는 주어의 관점을 표시한다. 그러나 여전히 다양한 활용형을 취하며 서술부의 구성 요소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조동사로서의 통사 범주는 바뀌지 않았다. 주관적 의미의 영역간 이동이 반드시 통사적 지위의 이동을 수반하지는 않는 것이다.

경향성 III의 영역내 변화는 ‘상호주관화(intersubjectification)’라는 이름으로 따로 거론되기도 한다. ‘상호주관화’는 화자가 지각하고 있는 사실을 근거로 하면서, 청자도 같은 지식세계나 사회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거나 끌어들이고자 하는 현상을 이른다(Traugott 1995, 1999).¹⁰⁾ 이를테면 선어말어미 ‘-습-’이 객체 존재의 의미로 사격어에 대

언이 능동문에서 주어와 의미의 관련성을 맺고 있었을 경우, 피동화했을 때 의미 해석이 달라지게 된다. 그러나 보조용언이 화자의 관점을 의미할 때는 피동화된 명제에 대한 판단의 의미가 유지되므로 문장의 진리치가 바뀌지 않는다. ‘-어 버리다’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판단을 드러내는 의미가 강해 (1ㄱ, ㄴ)의 진리치는 동일하다. 반면 ‘-어 치우다’가 쓰인 (2ㄱ, ㄴ)의 능동문과 피동문은 진리치가 불일치한다.

(3) ㄱ. 재운은 숙제를 하지 않아 버렸다.

ㄴ. *재운은 숙제를 하지 않아 치웠다.

주어의 관점은 명제 내부에 위치하므로 부정문을 형성하면 명제와 함께 부정되는 반면, 화자의 관점은 명제 바깥에 위치하므로 부정된 명제 내용에 대한 화자의 관점 의미로 유지되는 현상을 보인다. (3ㄱ)은 숙제를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가치판단이 드러난 반면, (3ㄴ)은 비문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0) Benveniste (1971[1966])는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을 화청자간 관계로 정립하였다. 주관성(subjectivity)은 화자의 태도나 믿음을 언어화(encoding)한 것임에 반해, 상호주관성은 화자와 청자를 함께 고려한다. 즉 상호주관성은 주관성에 비하면 조금 더 청자를 고려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Edward Finegan(1995: 2)은 언어는 단순한 형식, 명제의 표현, 논리적 진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각하고, 느끼고, 주체를 말하는 표현이기도 하다고 말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학에서는 주관성을 다루어야 하며, 주관화는 인간언어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일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대화 상황에서 청자는 곧 또다른 화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상호주관화가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럽다.

한 존재의 의미를 나타내다가, 청자를 의식한 의미로 바뀌면서 청자경어법의 의미로 재해석되는 현상을 들 수 있다. 청자경어법은 청자의 지위에 대한 화자의 고려에서 나오는 것으로, 청자와 화자의 관계를 고려하여 사용하는 장치이다. ‘-습-’의 의미가 객체에 관한 기술에서 청자에 관한 의미로 변화한 결과, 본래 청자경어법이 나타나는 자리인 종결어미의 일부가 되는 양상을 보인다. 17세기 문헌인 첩해신어에 ‘흐습느이다, 흐습닌’ 등이 나타나 최초의 용례가 보인다.

- (9) ㄱ. 맞당히 너기시디 아니흐실가 근심흐습느이다 (첩해신어 5:26)
 ㄴ. 그리 니르시물 고디 아니 듣습닌 (첩해신어 2:8)
 ㄷ. 하 섭섭흐오니 쏘 흐 츠레 흐습새 (첩해신어 2:6)
 ㄹ. 나의 스스스경잇 잔이오니 이 一杯만 줍습소 (첩해신어 2:7)

이상을 통해 볼 때, 의미의 주관화는 주관성의 성격이 달라지는 변화와 주관성이 강화되는 변화로 나눌 수 있으며, 주관화의 경향성은 다섯 단계로 생각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¹¹⁾

11) 상술한 다섯 가지 변화가 모두 동일한 정도로 중요도를 갖는 것은 아니다. 영역내 변화는 주로 한 언어 단위의 다의성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며, 영역간 변화는 문법화를 통해 언어 단위의 문법적 지위 변화를 일으키는 동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문법화론은 모든 방식의 언어 변화에 관심을 가지지만, 연구자들이 더 문법적인 단위로 변하여 가는 과정, 그 결과 산출되는 문법단위를 탐구하는 데 더 큰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으므로, 영역간 변화를 통해 도약적인 변화를 설명하는 것이 연구 목적에 따라 더 큰 중요도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서로를 선후 단계로 하여 자주 연이어 나타나므로 어느 단계를 없애거나 축소할 수는 없다.

Ⅲ. 주관화와 문법화

서론에서 주관화는 문법화론의 논의 과정에서 의미 변화를 설명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고 하였으나, 주관화가 반드시 문법형태화를 수반하거나, 혹은 문법형태화가 주관화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주관성은 화용론과 담화에 기반해 성립하는 의미이므로, 그 영역이 문법에만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관화가 구조적인 변화를 반드시 동반하는 것은 아니다 (Traugott 1995: 32; 2010a: 38; Traugott and Dasher 2002: 87 - 90). 마찬가지로, 문법화가 일어나기 위해 반드시 주관화 과정을 겪을 필요는 없다(Traugott 2010: 40).

그러나 의미의 변화는 문법화를 촉발하는 동기가 된다. 화자가 의미를 덜 주관적인 것에서 더 주관적인 것으로 만들려는 경향은 언어의 ‘표현성’을 증가시키는데, ‘표현성’의 증가는 일반적으로 언어 변화의 주요 동기가 된다(Hopper and Traugott 2003: 73; Heine and Stolz 2008: 351). 더군다나 문법화론에서 의미 변화가 구조 변화에 선행하고 구조 변화를 동기화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cf. Haspelmath 1999: 1062; Hopper and Traugott 2003: 100; Traugott and Dasher 2002: 283), 주관화, 또는 상호주관화를 통해 얻어진 주관성이 문법 변화에 반영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주관화와 문법화가 필연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주관화가 문법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자세히 탐구될 필요가 있다. 주관화가 중요한 이유는 기존의 문법화론을 더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문법화론을 보완할 근거와 방향을 제시해 주기 때문이다. 주관화를 통해 얻어진 의미는 문법형태화 과정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의미와 차이를 보이곤 한다. 전통적으로 문법화론에서 다루는 전형적인 문법범주는 담화 표지나 관점

표지를 포괄하기에 부적합하다.

여기에서 ‘화용화’의 개념이 도입된다. 화용화는 담화 표지나 양태 첨사가 생기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쓰여 왔다. 문법화는 어휘형태나 구조로부터 문법형태나 구조를 도출하는 과정인 반면 화용화는 청자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증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두 과정을 구분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¹²⁾ 그러나 화용화와 문법화는 서로 배제적이지 않은 개념이다(Diewald 2011).¹³⁾

화용화가 전형적인 문법화와 달리 담화 표지나 화용 표지를 최종 결과로 하지만, 접속사에서 담화 표지로 발달하는 독일어의 ‘obwohl’(Günthner 1999), 영어에서 문말에 나타날 때 담화 기능을 하는 접속사 ‘though’(Barth and Couper-Kuhlen 2002)와 같은 화용화의 예들은 그 발달 과정이 문법화의 의미적·구조적 특징을 공유한다.

한국어에도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문법화의 사례로 보기 어려운 현상이 있다. Hopper & Traugott(1993:177)은 절 결합의 연속변이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0) 병렬(parataxis) > 종렬(hypotaxis) > 종속(subordination)

문법화 경로가 절 연결의 문법적 장치가 발달하는 경로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절 결합의 연속변이 과정은 관점을 달리해 절 자체가 어떻게 변화

12) 정의에서 알 수 있듯, ‘화용화’는 ‘주관화’ 과정 중에서도 특히 경향성 III과 관련된다.

13) ‘화용화’를 ‘문법화’의 일부로 인정하고 그 구분을 없애는 논의로 김민국(2011)이 참고된다. 본고는 김민국(2011)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문법화’라는 용어가 가진 두 가지 의미를 받아들이고, 화용화를 문법화의 하나로 보는 입장을 취한다. 즉 문법화는 문법 형태화뿐 아니라, 언어의 변화와 변이에 관여하는 원리를 다루는 것으로 보고, 화용화는 그 하위에 있는 이론으로 인정한다.

하는지 기술한 것이다. 남미정(2010)에서는 한국어에서 일반적으로 문법화 현상으로 다루어지는 현상 중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가 절 접속의 일반적인 문법화 경향에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이는 문법화 논의에서 정립된 특정한 경향에 반해 체계적으로 나타나는 반증례¹⁴⁾¹⁵⁾라는 점에서 귀중한 관찰이다. 본고는 이 사례가 의미의 주관화 과정, 그리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화용화 과정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설명하고, 기존의 이론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문법화 논의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국어의 연결어미 중 적지 않은 수가 종결어미로 변화하거나, 두 가지 기능으로 함께 쓰인다. 연결어미였던 것이 후행절의 생략이나 도치에 의해 종결어미의 용법을 획득한 것으로, 연결어미는 높임법이 실현되지 않으므로 종결어미가 되었을 때 반말체 어미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남미정(2010)은 ‘-어, -지, -거든, -는데’를 들고 있으며, 그 중 ‘-거든’과 ‘-는데’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들은 의존명사 ‘ㄷ’를 포함한 명사구 보문 구성에서 연결어미로 문법화된 후 다시 종결어미로 사용되며 새로운 문법적 기능을 획득하였다.

‘-거든’은 [조건], [이유], [상황제시], [대조]의 의미를 담당하는데, 종결

14) 문법화 이론에 대한 반례로 제시되는 사례는 여러 언어에서 산발적으로 나타나곤 한다. 그러한 예외는 보통은 하나의 어휘에만 국한하여 일어나는 등 특수한 사례에 그치는 반면, 문법화의 단일방향성을 지지하는 예는 체계적이고 집단적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이론의 성립에 힘을 부여한다(Hopper & Traugott (1993[2003]: 130-138). 그런데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는 한국어에서 매우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산발적인 반례가 아니라 체계적인 반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 사례를 검토하는 것은 문법화의 이론적 논의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15) 절 결합의 연속변이에서 벗어나는 체계적인 반증례는 한국어 외에도 Evans(1988)가 보고한 Kayardild의 예가 있다. 이 언어에서 종속절의 특이격을 표시하는 방식은 역사적으로 모문으로 확대되었는데, 일반적으로 모문이 점차 종속절로 변해 간다는 경향성에 반대되는 예이다(Evans 1988:255).

어미가 되면서는 연결어미 ‘-거든’이 [조건] 의미를, 종결어미 ‘-거든’이 [상황제시]와 [이유]를 나타내는 것으로 양분된다. ‘-는데’는 후행절의 내용에 대한 배경이나 상황을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 남미정(2010)은 이들이 연결어미일 때와 종결어미일 때 의미가 동일하고¹⁶⁾, 재분석 절차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문법화의 예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절 결합의 연속변이 단계를 들어, 연결어미가 종결어미보다 덜 문법적이라는 점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본고는 ‘-거든’, ‘-는데’의 변화 원리는 문법화와 같으며, 단지 그 결과가 담화적인 것이 되었다는 입장을 취한다. 연결어미가 종결어미화할 때 보이는 문법화의 특징들은 전통적인 문법화 이론의 원리와 근본적으로 분리될 수 없다.

- 의미의 탈색 현상 : 연결어미가 종결어미로 바뀌면서 담화 상황에서 쓰이는 것은 두 명제를 연결하는 관계적 의미가 약화된 반면, 문말에서의 화행 의미가 강화된 것이다. 명제간 연결 의미의 약화는 의미의

16) 구현정·이성하(2001:10)은 접속문의 선행절이 종속절에서 주절로 위계적 상승을, 후행절은 위계적 강등을 당하면서 종결어미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과정 중에 다양한 화용론적 추론이 일어나 귀류적 의미들이 관습화되어 새로운 종결어미의 의미로 편입된다고 하였다. 남미정(2010)은 여기에 반박하며, ‘-거든’, ‘-는데’가 종결어미로 쓰이게 되면서 새롭게 획득한 의미이지, 의미의 변화가 종결어미화를 촉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화용적 맥락의 고착화가 의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감안하면, 화용론적 추론에 의해 발생하는 종결어미적 의미는 완전한 종결어미화 이전에도 반복해서 나타난 것이다. 즉, 수의적인 후행절 생략에 의해 반복적으로 생겨난 화용론적 추론이 의미에 편입됨에 따라, “점차 종결어미로 쓰일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아야 한다. 단지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접속문 후행절의 생략이 반복되면서 문장 연결을 담당하던 형태가 끝맺는 기능을 획득한 것(남미정 2010: 48-49)”이라고 하였지만, 본고는 단순히 끝맺는 기능만 획득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의미의 증가가 있었으며, 그 의미는 청자를 향한 화자의 의향이라고 본다.

탈색 현상으로 볼 수 있다.¹⁷⁾

- 화용적 강화: 화용적으로 단지 암시되는 의미가 반복적 사용을 통해 의미의 일부가 될 때 이를 화용적 강화라 하는데,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 역시 후행절이 생략될 때 발생하는 화용적 의미가 의미의 일부로 해석되면서 화용적 강화에 의해 종결어미화된 예이다.
- 층위화: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종결어미와 공존하는 현상을 보인다. ‘-거든’은 [이유]의 종결어미로 사용되면서, ‘-것다’(해라체), ‘-게’(이하 해체), ‘-더라니(까)’, ‘-니까요’(이하 해요체), ‘-아서요’ 등과 공존하며(이종희 2004: 127), [전제]의 종결어미로 사용된 ‘-거든’과 ‘-는데’가 공존한다(이종희 2004: 163)
- 분화: 김태엽 (2000)은 연결어미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종결어미의 기능을 획득하는 현상을 분화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상과 같은 예를 통해,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가 기존의 문법화와 원리를 같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문법화 이론이 특히 문법형태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절 결합의 방향성 또한 전형적인 문법형태에 맞추어진 것일 수밖에 없다. Hopper & Traugott(1993:175-177)에서 절 결합의 연속변이 과정을 “병렬 > 종렬 > 종속”의 과정으로 설정한 이유는, 절을 결합하는 연결소가 문법형태화되는 과정을 절의 입장에서 기술하였기 때문이다. 접속사가 보문소가 되는 경향을 절의 입장에서 기술하면 병렬

17) 문법화 과정에서의 의미 변화는 흔히 ‘탈색’으로 일컬어지며 주로 구체적인 의미의 상실 과정으로 논의되지만, 적극적으로 해석할 때 추상적인 의미의 획득으로도 볼 수 있다. Hopper & Traugott (1993[2003]: 94)은 의미의 ‘탈색’과 ‘화용적 강화’가 얼핏 상충되는 것으로 여겨질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영어의 미래 의미를 표현하는 go의 용법이 물리적 이동의 의미를 ‘상실’한 동시에 미래 예측과 의도의 의미를 ‘획득’하였다고 기술한 Sweetser(1988: 392)를 언급하였다.

관계가 종속 관계로 변화하는 과정이 성립한다. 절 결합의 연속변이 모델이 문법형태화를 전제하고 기술되었기 때문에, 절을 연결하는 요소가 전형적인 문법형태화의 과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 절의 입장에서는 절 결합의 경향성을 벗어나는 사례가 된다.

결국 이는 문법화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문제가 된다. 문법화를 결과로 볼 것인가, 과정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오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두 과정을 분리하기 위해 결과로서의 문법화를 ‘grammaticization’, 과정으로서의 문법화를 ‘grammaticalization’로 구분하는 등의 시도가 있었다. 결국 ‘문법화’라는 용어로 ‘문법형태화’만을 가리킨다면 모든 언어의 변화를 포괄할 수 없기 때문에, 보편적인 언어 변화를 이론 안에 담으려는 고민으로 시작된 논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문법화를 과정적인 의미로, 언어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으로 받아들인다. 특히 담화 상황에서 화자 관여(speaker involvement)의 증가를 특징으로 하는 주관화 Ⅲ의 영역간 변화, 청자에 대한 화자의 주의를 표현하는 주관화 Ⅲ의 영역내 변화(상호주관화)는 화용화 과정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 문법화 기제와 동기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문법화의 안으로 편입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담화 표지의 발달이나 종결어미의 형성과 같이 기존의 협소한 정의에 들어맞지 않았으나, 문법화의 핵심적인 기제를 공유하는 현상을 포괄할 수 있게 된다. 종결어미의 발달은 기본적으로 의미의 주관화에 의해 촉발된다. 종결어미 위치는 한국어에서 문법적으로 의항법을 실현하는 전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연결어미의 의미가 담화 영역 의미로 변화할 때, 연결어미가 종결어미로 변화할 동기가 생긴다. 특히 연결어미나 전성어미¹⁸⁾가 종결어미로 변화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이와 반대 방향으로 종결어미가 변화의 출발점이 되는 사례는 관찰하기 어렵다. 이처럼 변화의

방향이 늘 종결어미를 향한다는 사실은 유현경(2003)에서 지적하였듯이 단일방향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체계적인 변화의 방향이 관찰될 때,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이론을 수정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것이다.

문법화 과정은 언어 요소들의 관계를 문법적으로 구조화하는 것이고, 화용화 과정은 언어 요소들의 관계를 담화/화용적으로 구조화하는 것이다. 인간이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달성하려는 의사소통적 목적은 정보 전달뿐 아니라, 감정 전달의 정감적 목적이 함께 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Givon(1979:209)이 “오늘의 통사론은 어제의 화용론”임을 천명하며 설정한 문법화의 방향성을 볼 때, 화용상 반복하여 나타나는 화자의 주관적인 평가와 감정적 의미가 문법화에서 결코 적지 않은 역할을 할 것임을 알 수 있다.¹⁹⁾

IV. 결론

본고는 지금까지 세 가지 경향성으로 기술되어 왔던 주관화 이론을 다섯 단계로 세분하였다. 주관화론은 의미의 변화에 관한 이론이며, 의미의 영역 사이를 도약적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한 영역 내에서 주

18) 종속 연결어미(-거든, -니까, -은/는데), 대등 연결어미(-건만, -으면서), 보조적 연결어미(-어, -게, -지, -고), 명사형 어미(-음, -기) 모두 종결어미로서의 용법이 발달한 예이다(김태엽 2000).

19) 문법화 과정에서 언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화자임을 명확히 하면, 문법화를 대하는 이론적 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를테면 지금까지의 문법화 연구는 주로 통시적인 변화를 다루었지만, 실제로 언어 변화는 화자에 의한 것이므로 문법화가 근본적으로 공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Fischer(1997)의 주장은 문법화 이론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함으로써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이론을 고쳐 보게 된 예이다.

관성이 증가하기만 하는 경우도 있어, 체계의 균형을 위하여 영역내 변화와 영역간 변화의 구분을 도입한 것이다.

주관화 과정은 의미 변화에 관한 이론이므로 필수적으로 통사적 변화와 1:1 대응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경향성 I의 영역내 변화를 통해 자립명사에서 의존명사로의 변화를 보일 수 있고, 반대로 경향성 III의 영역간 변화를 통해서도 범주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 보조동사의 예를 이미 살펴보았다. 그러나 많은 경우 주관화 II의 영역간 변화는 연결어미화를, 주관화 III의 영역간 변화는 선어말어미화, 그리고 종결어미화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주관화 논의는 문법화 과정을 논의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범주 변화를 보이지 않는 예를 정밀하게 살펴보는 데 유용한 도구를 제공한다. 이를테면 보조동사 논의에서 의미 변화의 성격을 명시할 경우, 가시적인 통사 범주의 변화를 보이지 않아 눈으로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어떤 종류의 의미 변화에 주목해야 하는지 알 수 있으므로 문법화 정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주관화 과정을 다섯 단계로 세분한 것은 주목해야 할 의미 변화의 성격을 명시함으로써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주관화 이론이 문법화 이론에 대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았다. 문법화 이론은 언어의 체계적인 변화 경향과 그 원인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다. 기존의 문법화론은 점차 '문법적인 것'으로 변하여 가는 현상이라는 정의에 집중한 나머지 같은 기제와 원리를 공유하는 여타의 언어 변화 과정을 문법화 '이론' 안에 담는 것이 어려웠다. 이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과정으로서의 문법화'와 같은 논의를 통해 문법화 이론의 범위는 계속하여 확장되었다.

이러한 재정정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주관화' 이론이다. 주관화 이론은 의미 변화의 방향과 이를 동기화하는 인지적 기제를 설명하

는 데 유용하다. 특히 주관화가 담화 영역까지 진행되었을 때 발생하는 문법화 현상, 즉 화용화 현상은 문법형태화 중심의 문법화론이 포괄하지 못했던 체계적인 언어 변화를 포괄하게 해 준다. 한국어에서는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가 이러한 체계적인 변화에 해당한다.

이론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복무하는 것이라고 할 때, 이론의 범주에 무엇이 속하고 속하지 않는지 가려내는 행위는 이론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현상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관화와 그로 인한 화용화 현상은 기존의 문법화론에 무엇을 더하고 수정하여야 언어의 변화를 더 잘 설명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하며, 그 결과 문법화론이 발전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참고문헌】

- 김민국, 「'말이다' 구성의 문법화와 화용화」, 『국어학』 62, 2011.
 김태엽, 「국어 종결어미화의 문법화 양상」, 『語文研究』 33, 2000.
 남미정, 「국어의 문법화에 대한 재고」, 『한국어학』 49, 2010.
 박재연, 『한국어 양태 어미 연구』, 태학사, 2006.
 석주연, 「'-도록'의 의미와 문법에 대한 통시적 고찰」, 『한국어 의미학』 19, 2006.
 송대현, 『한국어 명사의 문법화 양상 연구』, 청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신연수, 오윤경, 「'-도록'의 의미—도급에서 온 목적」, 『국어학』 74, 2015.
 안주호, 『한국어 명사의 문법화 현상 연구』, 한국문화사, 1997.
 ———, 「'원인'을 나타내는 연결어미에 대한 통시적 고찰 - 〈노결대언해〉 류를 중심으로-」, 『언어학』 34, 한국언어학회, 2002.
 유현경, 「연결어미의 종결어미적 쓰임에 대하여」, 『한글』 261, 2003.
 이기갑, 「'-어/어서'의 공시태에 대한 역사적 설명」, 『담화와 인지』 5-2, 담화인지언어학회, 1998.
 이성하, 『문법화의 이해』, 한국문화사, 1998.

- 이종희, 『국어 종결어미의 의미 체계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 조미희, 『국어 보조동사 의미의 주관화 : ‘-어 놓다, -어 두다, -어 버리다, -어 치우다’ 쌍을 중심으로』, 『형태론』, 15-1, 2013.
- Barth, Dagmar & Elizabeth Couper-Kuhlen. 2002. On the development of final though: A case of grammaticalization? In Ilse Wischer & Gabriele Diewald (eds.), *New reflections on grammaticalization* (Typological Studies in Language 49), 345 - 361.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Benveniste, Emile, 1971. *Problems in General Linguistics*. Coral Gables, Fla.: University of Miami Press (English translation of the paper collection *Problèmes de linguistique générale*, Paris: Gallimard, 1966; originally published 1958 in the *Journal de psychologie* 55).
- Closs, Traugott Elizabeth, and Richard B. Dasher. "Regularity in semantic change." (200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 Dancygier, Barbara, and Eve Sweetser. *Mental spaces in grammar: Conditional constructions*. Vol. 108.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 Diewald, Gabriele. Pragmaticalization (defined) as grammaticalization of discourse functions. *Linguistics* 49.2 (2011) 365-390.
- Evans, Nick. 1988. "Odd topic marking in Kayardild." In Peter Austin (ed.), *Complex Sentences in Australian languages*, 219-266.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 Finegan, Edward. "Subjectivity and subjectivisation: an introduction." *Subjectivity and subjectivisation: Linguistic perspectives* (1995): 1-15.
- Fischer, Olga. "On the status of grammaticalisation and the diachronic dimension in explanation." *Transactions of the Philological Society* 95.2 (1997): 149-187.
- Givón, Talmy. *On understanding grammar*. Academic Press, 2014.
- Günthner, Susanne. 1999. Entwickelt sich der Konzessivkonnektor obwohl zum Diskursmarker? *Grammatikalisierungstendenzen im gesprochenen Deutsch*. *Linguistische Berichte* 180. 409 - 446.
- Haspelmath, Martin, 1999. Why is grammaticalization irreversible? *Linguistics*

37.6, 1043 - 68.

- Heine, Bernd, and Thomas Stolz, 2008. Grammaticalization as a creative process. *Sprachtypologie und Universalienforschung* 61, 326 - 57.
- Heine, Bernd, Ulrike Claudi, and Friederike Hünemeyer. Grammaticalization: A conceptual framework.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1.
- Hopper, Paul, and Elizabeth Closs Traugott, 2003. Grammaticalization, 2nd ed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st edn 1993.)
- _____. and Traugott, E. 1993. Grammaticaliz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 Narrog, Heiko. Modality, subjectivity, and semantic change: a cross-linguistic perspective.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 Sweetser, Eve E. "Grammaticalization and semantic bleaching." Annual Meeting of the Berkeley Linguistics Society. Vol. 14. 1988.
- Tabor, Whitney and Elizabeth Closs Traugott. 1998. Structural scope expansion and grammaticalization. In Anna Giacalone Ramat and Paul J. Hopper, eds., *The Limits of Grammaticalization*, 227-70. Amsterdam: Benjamins
- Traugott, Elizabeth Closs. 1995 "Subjectification in grammaticalization", in Dieter Stein and Susan Wright, eds., *Subjectivity and Subjectivis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37-54.
- _____. "From propositional to textual and expressive meanings: Some semantic-pragmatic aspects of grammaticalization." *Perspectives on historical linguistics* (1982): 245-271.
- _____. 1999 "The role of pragmatics in a theory of semantic change", in Jef Verschueren, ed., *Pragmatics in 1998: Selected Papers from the 6th International Pragmatics Conference*, II. Antwerp: International Pragmatics Association, 93-102.
- _____. 2010a. (Inter)subjectivity and (inter)subjectification: a reassessment. In Hubert Cuyckens, Kristin Davidse, and Lieven Vandeloote (eds), *Subjectification, Intersubjectification and Grammaticalization*, 29 - 71. Berlin: Mouton de Gruyter.
- _____, and Ekkehard König. "The semantics-

pragmatics of grammaticalization revisited." *Approaches to grammaticalization* 1 (1991): 189-218.

Abstract

On a Subjectivization and a range of Grammaticalization in Korean

Cho, Mi-hee

In order to explain language change, concept of "subjectivization" is introduced and used to theorizing semantic changes. This paper intends to use subjectivization theory to give explanation of what happens in Korean, like the change from Connective endings to Final endings. This paper tried to divide the areas in subjectivization to five stages. Each of them is a semantic change which is occurred in the domain or between the domains. Pragmaticalization is motivated by Subjectivization, and shows not typical grammatical element as a result, but still Pragmaticalization shares common principles and motivations. Thus systemic changes from Subjectivization and Pragmaticalization are helpful to revisiting Grammaticalization.

Key Word : Subjectivization, Pragmaticalization, Grammaticalization,
Grammaticization, Domain, Connective endings, Final endings

조미희

소속 : 연세대학교 박사과정

전자우편 : jaicky@naver.com

이 논문은 2016년 6월 30일 투고되어
2016년 7월 31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6년 8월 5일 게재 확정됨.